

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

【지역이슈분석 2013-8】

2012. 5. 23.

러시아 성장잠재력 분석과 투자환경 평가

목 차

I. 러시아 성장잠재력 분석	1
II. 러시아 투자환경 평가	5
III. 시사점	11

국별조사실

작성: 팀 장 조양현 (3779-5707)
yhjo@koreaexim.go.kr

확인: 실 장 이한구 (3779-5702)
hklee@koreaexim.go.kr



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브릭스(BRICs) 국가의 경제 성장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, 포스트브릭스(post-BRICs)를 포함한 신흥시장(Emerging Market) 국가들의 경제성장 모멘텀 여부가 세계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. 이에,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러시아¹⁾에 대한 성장잠재력과 투자환경을 평가하고,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함.

I. 러시아 성장잠재력 분석

1. 글로벌 경쟁력지수 (WEF 평가)

□ 종합순위: 2012년 67/144위로 BRICs 중 최하위 기록 (점진적 하락)

- 세계경제포럼(WEF)은 매년 9월 중순 140여 개국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지수(Global Competitiveness Index: GCI)²⁾를 평가하는데, 러시아는 2012년 144개국 중 67위를 기록했으나 BRICs 4개국 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.
- 2012년 평가에서 BRICs 중 중국 29위, 브라질 48위, 인도 59위로 나타났고, 최상위 국가로는 스위스, 싱가포르, 핀란드, 스웨덴 등의 순임(한국: 19위).
- 2006~12년 글로벌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러시아는 2008년 51위로 상승했으나, 2009년 이후 하락하여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 점진적인 악화추세를 시현함.

<표 1> 브릭스 글로벌 경쟁력지수 순위 추이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러 시 아	59	58	51	63	63	66	67
중 국	34	34	30	29	27	26	29
브 라 질	66	72	64	56	58	53	48
인 도	42	48	50	49	51	56	59
대 상 국	125	131	134	133	139	142	144

자료: World Economic Forum, *Global Competitiveness Index*.

1) 러시아는 골드만삭스에 의해 2001년 중국, 브라질 및 인도와 더불어 브릭스 국가로 언급된 이후 우리나라에 서도 삼성경제연구소, Kotra 및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요 신흥투자시장으로 분류됨.

2) WEF는 기초여건, 효율성 및 혁신 분야에 대해 총 12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2006년부터 매년 평가함.



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성장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, 인프라스트럭처, 노동시장 효율성 및 기술수준에 대한 부문별 평가가 필요함.

□ 시장규모: 세계 7위권 수준 유지

- 러시아는 2012년 기준으로 GDP 1조 9,700억 달러(세계 9위), 인구 1억 4,337만 명(세계 9위)의 경제대국임. 동년 기준 1인당 GDP도 13,790달러로 상승하여 세계은행 기준에 의하면, 상위중소득국(UMIC)으로 분류됨.
 - 시장규모 세계 최상위: 미국, 중국 등의 순 (중국 2위, 브라질 9위, 인도 3위)
- WEF 2012년 평가에서는 러시아 내수 시장규모가 세계 전체에서 7위를 차지했는데, 평가를 시작한 2006년 9위에서 2008년 이후 7~8위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12년에는 국민소득 상승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7위권으로 진입함.

□ 인프라스트럭처: 세계 47위권 수준으로 상승추세 시현

- WEF 인프라스트럭처 평가에서는 도로, 철도, 항만, 항공 등의 교통인프라 이외에도 모바일, 유선전화 등의 통신인프라와 전기공급 상황도 반영되고 있는데, 2012년 평가에서 러시아는 4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 - 인프라스트럭처 세계 최상위: 홍콩, 싱가포르, 독일, 프랑스 등의 순 (중국 48위, 브라질 70위, 인도 84위)
- 러시아는 2006년 평가에서 66위를 기록했으나, 이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2008년 59위, 2010년 47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사회간접자본(SOC)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평가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임.

□ 노동시장 효율성: 세계 80위권 밖으로 급락

- WEF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노사관계 협력정도, 임금결정 유연성, 고용·해고 관행, 노동생산성, 관리체계, 두뇌 유출, 여성 노동참여율 등을 평가함. 2012년 평가에서 러시아는 84위를 기록해 2006년 평가 당시의 40위에서 크게 하락함.



- 노동시장 효율성 세계 최상위: 스위스, 싱가포르, 홍콩 등의 순 (중국 41위, 브라질 69위, 인도 82위)
- 특히, 노동생산성 부문에서는 러시아가 2006~08년 31위, 14위, 11위로 선진권 수준이었으나 2009~12년에는 급격히 악화되어 각각 35위, 47위, 61위, 65위로 하락함. 이 같은 순위 하락의 배경에는 동 기간 중 물가 상승추세와 비례하는데, 러시아에 대해 인플레이션 평가를 시작한 2009년 이후 111~125위권을 기록한 바 있음.

□ 기술수준: 세계 57위권으로 지속 상승

- WEF는 기술수준 평가에서 첨단기술 수준, 기술 수용성, 기술이전, 인터넷 사용인구,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율, 인터넷 접속정도, 모바일 사용비율 등을 측정하는데, 2012년 평가에서 러시아는 57위를 기록함.
- 기술수준 세계 최상위: 스웨덴, 룩셈부르크, 덴마크 등의 순 (중국 88위, 브라질 48위, 인도 96위)
- 러시아 기술수준은 2006년 72위에서 2008년 67위로 상승했다가 2009년 74위로 하락한 이후 2010년 이후 다시 상승추세를 보임. 2010년 69위에서 2011년 68위, 2012년 57위로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기술수준의 국가간 비교는 쉽지 않은 영역이나, 인터넷 및 휴대폰 등 통신기반 관련 기술을 비교한 것으로 통신 인프라 평가수준과 대체적으로 비례함.

<표 2> 러시아의 글로벌 경쟁력지수 부문별 평가순위 추이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대상국	125	131	134	133	139	142	144
시장규모	9	9	8	7	8	8	7
인프라	66	65	59	71	47	48	47
노동시장	40	33	27	43	57	65	84
기술수준	72	72	67	74	69	68	57

자료: World Economic Forum, *Global Competitiveness Index*.



2. 경제성장률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점진적 둔화

- 구소 붕괴로 러시아는 1997년까지 경기가 위축된 이후 거시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었으나,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회원국 평균의 40%에 불과함. 러시아의 경제성장 패턴은 국제유가의 변동추세(지난 20년간 국제유가는 4배 상승)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.
- 1990년대 말을 전후한 러시아의 경기부진은 정치·경제 불안정, 취약한 경제 정책시스템, 열악한 투자환경 등에 기인함.
-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광활한 영토, 풍부한 천연자원,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,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7%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,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($\Delta 7.8\%$)을 기록한 바 있음.
-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1,028만 배럴/일(세계 2위, 시장점유율 12%), 천연가스 생산량은 6,070억 m^3 (세계 2위, 시장점유율 22%) 수준임.

<표 3> 러시아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

광물자원	매장량	세계 순위	세계 점유율(%)
천연가스	44.6조 m^3	1위	21.4
석탄	1,570억 톤	2위	18.2
철광석	250억 톤	2위	15.6
원유	882억 배럴	8위	5.3

자료: BP, *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*, June 2012.

- 러시아는 2010년 중 국제유가 상승, 정부의 부양정책 효과 가시화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4.5%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, 2011년 중 실질임금 상승, 농산물 풍작, 2011년 12월 총선 및 2012년 3월 대선을 앞둔 경기부양책 확대 등으로 4.3%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.
- 2012년에는 유로존 등 세계 경기침체, 하계 가뭄에 따른 농업부문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진 3.4%³⁾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

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율은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9년의 18.6% 수준에서 2012년에는 25.1% 수준으로 상승함.

<표 4>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추이

단위: %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러 시 아	8.2	8.5	5.2	△7.8	4.5	4.3	3.4
중 국	12.7	14.2	9.6	9.2	10.4	9.3	7.8
브 라 질	4.0	6.1	5.2	△0.3	7.5	2.7	0.9
인 도	9.4	10.1	6.2	5.0	11.2	7.7	4.0
세계 평균	5.3	5.4	2.8	△0.6	5.2	4.0	3.2

자료: IMF, *World Economic Outlook*, April 2013.

II. 러시아 투자환경 평가

1. 국가신용등급

□ OECD Country Risk, 3/7등급 수준으로 유지

- 러시아는 1998년 재정위기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몇 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, 2000년 푸틴 정부의 집권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OECD 국가위험(Country Risk) 평가등급이 2011년에는 종전의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됨.
-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 개선,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, 양호한 외채현황 등을 이유로 등급이 상승했으며,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기조에서 흑자폭이 GDP의 4.5%, 외환보유액이 4,731억 달러(세계 4위)로 월평균수입액의 10개월분을 상회함.
- 러시아는 원유 및 가스 생산과 수출로 경제성장 지속 및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나, 원유,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의존(GDP의 18%, 재정수입의 50%, 총수출의 59%)으로 인해 국제유가의 등락에 크게 영향)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이 잠재되어 있음.

3) 2009년을 제외하면, 푸틴 총리 재임시인 1999년 이후 최저 성장률 수준

4) 우랄산 유가가 10% 변동할 경우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1% 정도 조정되는 경향



-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산업 의존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 이후 경제현대화⁵⁾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음.

<표 5> OECD 브릭스 국가위험 평가등급 추이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러 시 아	4	3	3	3	4	3	3
중 국	2	2	2	2	2	2	2
브 라 질	4	3	3	3	3	3	3
인 도	3	3	3	3	3	3	3

자료: OECD, *Historical Country Risk Classification*.

□ S&P Sovereign Risk

- 2009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, S&P는 2009년 12월 러시아 정부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BBB/Negative에서 BBB/Stable로 하향조정한 이후 동 등급 수준을 유지함.
- BRICs 정부채권 신용등급 (2013년 5월 말 기준): 중국 AA-/Stable, 브라질 BBB/Stable, 인도 BBB-/Negative (한국 A+/Stable)

<표 6> S&P 브릭스 정부채권 신용등급 추이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러 시 아	BBB+	BBB+	BBB	BBB	BBB	BBB	BBB
중 국	A	A	A+	A+	AA-	AA-	AA-
브 라 질	BB	BB+	BBB-	BBB-	BBB-	BBB	BBB
인 도	BB+	BBB-	BBB-	BBB-	BBB-	BBB-	BBB-

자료: S&P, *Sovereigns Rating List*.

5) 경제현대화 5대 전략산업: 에너지효율화(신연료 개발 등), 원자력, 우주 및 위성통신, 의료·바이오(진단장비 및 의약품 포함), IT(소프트웨어 개발 등)



2. 투자규제

□ 기업경영여건 (IFC 평가): 2012년 112/185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 형성

-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(IFC)는 매년 9월 세계 180여 개국에 대해 기업경영여건(Doing Business)⁶⁾을 평가하고 있는데, 2012년 평가에서 러시아는 112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됨. 러시아는 2006년 평가에서 96위(사상 최고수준)를 기록했으나, 이후 2010년 123위로 사상 최저순위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임.
- 기업경영여건 세계 최상위: 싱가포르, 홍콩, 뉴질랜드, 미국 등의 순(중국 91위, 브라질 130위, 인도 132위, 한국 8위)
- IFC가 러시아의 투자환경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(2012년 기준)는 평가분야(10개) 중에서 전력수급(184위), 사업허가(178위), 대외무역(162위), 투자자보호(117위), 신용획득(104위), 사업개시(101위) 등의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데 기인함.
- 순위상승 분야: 조세납부(105위→64위), 사업폐쇄(60위→53위), 계약실행(13위→11위), 사업개시(111위→101위)
- 순위하락 분야: 신용획득(98위→104위), 투자자보호(111위→117위), 대외무역(160위→162위) 등

<표 7> 브릭스 기업경영여건 순위 추이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러 시 아	96	106	120	120	123	120	112
중 국	93	83	83	89	79	91	91
브 라 질	121	122	125	129	127	126	130
인 도	134	120	122	133	134	132	132
대 상 국	175	181	183	183	183	183	185

자료: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, *Doing Business*.

6) IFC는 현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국의 투자규제 정도를 측정하여 2003년부터 발표함.



3. FDI 유입현황

□ 2008년을 전후하여 FDI 유입규모는 급등락 추세 시현

-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하면,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금액은 1998~2002년 중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으로 저조했으나 2003년 이후 급증해 2008년에는 연중 7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(GDP의 4.5% 수준)를 기록하면서 신흥투자시장 중 중국에 이어 제2위 FDI 유입실적을 시현함.
-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, 연도별 FDI 유입액이 2003년 80억 달러, 2004~05년 평균 140억 달러, 2006년 297억 달러, 2007년 551억 달러, 2008년 750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-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러시아에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는데, 이는 고유가에 힘입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었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된 데 기인함. 특히, 2008년에는 전력산업의 민영화, 천연자원, 자동차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대형 투자가 성사됨.
- UNCTAD에 따르면, 2008년 말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누계액이 2,140억 달러로 러시아 GDP의 12% 수준에 달했으나,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유동성경색과 이로 인한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09~11년 연평균 FDI 유입액은 442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됨.

<표 8> 브릭스 FDI 유입 추이

단위: 억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러 시 아	297	551	750	365	433	529	441
중 국	727	835	1,083	950	1,147	1,240	1,197
브 라 질	188	346	451	259	485	667	653
인 도	203	255	434	356	242	316	273
세계 전체	14,634	19,755	17,907	11,978	13,090	15,244	13,107

자료: UNCTAD, *World Investment Report*, 2012.



□ 2012년에는 자동차 생산설비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관심 증폭

- 2012년 5월, 르노-닛산은 러시아내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아브토바츠(AvtoVAZ⁷⁾)에 대한 지분투자를 2014년에 추가 투입(7.5억 달러)하기로 승인했으며, 8월에는 GM이 러시아내 자동차 생산법인⁸⁾의 연산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함. 또 피아트는 동년 말 연산 12만 대의 자동차 생산법인 설립에 8.5억 유로의 투자계획을 제시함.
- 한편, 2011년 초 Rosneft는 북극해 유전개발을 위해 BP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으나 동년 5월 법정 소송⁹⁾으로 동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2012년 10월, Rosneft가 TNK-BP 지분을 560억 달러에 최종 인수하게 됨. 따라서 2003년에 TNK-BP 지분을 80억 달러에 인수¹⁰⁾한 BP가 Rosneft 지분 13% 및 현금 171억 달러를 받게 되어 러시아의 원유가스 분야 외자유치는 실패함.

□ 독일·네덜란드 및 모스크바의 FDI 편중현상 지속

- 러시아에 대한 투자국 및 투자지역의 편중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과거 사이프러스, 버뮤다,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조세피난처로서 모자회사간 자본이동 및 도피자본 성격의 투자가 대부분이어서 최종적인 투자국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고, 실제로는 독일 및 네덜란드가 최대 투자국임.
-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지역으로는 모스크바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이밖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, 사할린, 칼루가 등의 순임.
 -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지역 중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투자 수요가 많으며, 사할린은 풍부한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역이고 칼루가 지역은 모스크바 인근의 산업지대가 위치해 있음.

7) 2008년 기준 르노의 지분은 25%(10억 달러)로 최대 주주이며, 추가 지분투자시 2014년에는 지분비율이 75%로 상승하게 됨.

8) St Petersburg, Kaliningrad 및 Togliatti 3곳에 자동차 생산공장 설립

9) 러시아내 BP 파트너인 TNK-BP 지분 50%를 소유한 올리가르흐(oligarchs) 그룹이 동 계약에 의한 러시아내 BP의 영업행위가 TNK-BP를 배제한 채 이뤄져 법률적 위반이라고 고소함.

10) 지난 10년간 90억 달러의 배당 수령



□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비중은 전체의 0.9% 수준

-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는 2006년 연 중 투자금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함.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투자사업 위주의 대 러시아 투자가 전년 대비 20% 증가한 4억 2,798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
-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비중은 1993년 0.002%(3백만 달러), 2005년 0.5%(3,472만 달러), 2010년 1.37%(3억 3,399만 달러)로 증가한 이후 2012년에는 0.44%(1억 달러) 수준으로 하락함.
-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는 2012년 말 기준(누계)으로 384건, 19억 4,217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투자 누계액(53,977건, 2,150억 5,069만 달러)의 0.9%(금액 기준)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제22위 투자대상국임.
- 러시아에 대한 투자실적을 업종별로 분류하면, 제조업이 총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, 최근에는 도소매업, 광업, 건설업, 농림수산업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-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제조업 전체의 30%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으로 전자부품, 컴퓨터 제조업의 순으로 투자함.

<표 9> 우리나라의 대 브릭스 직접투자 추이

단위: 백만 달러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러 시 아	114	238	358	428	334	98	101
중 국	3,475	5,330	3,791	2,176	3,636	3,683	3,306
브 라 질	110	265	635	132	1,064	1,114	956
인 도	100	296	189	241	200	441	284
투자 총액	11,796	22,302	23,883	20,382	24,366	26,495	23,164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.



III. 시사점

1. 중장기(2013~18년) 경제성장 전망

□ 러시아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환경 개선 인식

-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2년 5월 7일,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장기 경제 정책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함. 이에 따르면, 2018년까지 GDP 대비 고정자본투자 증가(21%→27%), 노동생산성 50% 증대, GDP 대비 하이테크 산업비중 30% 제고,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상승(120위→20위) 등을 제시함.
- 2013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추세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이 부진하고, 내수 침체 및 산업생산증가율 정체 등으로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(3.5% 수준)을 밑돌 것으로 전망됨.
- 러시아 경제개발부(Russia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)에 따르면, 201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.1%(수출증가율 -2.7%)로 위축되면서 2013년 경제성장 전망을 당초의 3.6%에서 2013년 4월에는 2.4%로 하향조정함.
 - 2013년 경기위축의 요인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필요, 국제유가 하락, 유럽 등 선진권의 경기침체 등의 대외변수를, 벨로우소프 경제개발부장관은 루블화 강세, 금리¹¹⁾ 상승, 재정 긴축, 노동생산성 저하, 지하경제 만연 등의 경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함.
- 러시아의 2014~18년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3.0~4.0%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음.¹²⁾ 특히, IMF는 러시아가 잠재성장률은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여건 개선 및 산업구조 다변화 등의 경제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평가함.
 - 2013~17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0~08년 경제성장률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 같은 분석의 배경에는 기존 유전 고갈, 생산 회복 지연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원유 등 에너지 생산량이 부진할 것이라는 점임.

11) 러시아 중앙은행 제한인율은 2013년 5월 기준 8.25%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.

12) 러시아의 2013~14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는 3.4% 및 3.8%, EU는 3.3% 및 3.8%, OECD는 3.8% 및 4.1%, EBRD는 1.8% 등으로 전망함.



2. 한-러 경제협력 확대분야

□ 한-러 무역 추이

- 1990년 양국간 수교 이후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, 과거 20년간 1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 그러나 러시아 및 한국의 경제규모(GDP 기준 세계 9위 및 15위)를 고려하면, 양국간 무역 및 투자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.
- 우리나라 무역규모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992년 0.12%(1억 9천만 달러)에서 2012년 2.10%(225억 달러)로 상승하였으나, 경제협력 부진은 시장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, 언어 및 행정 장벽, 복잡한 세제 등에 기인함.
- 러시아와 한국은 1990년 9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,¹³⁾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무역규모는 2010년 177억 달러, 2011년 212억 달러, 2012년 225억 달러로 증가함.
- 러시아: 우리나라의 10위 수출상대국, 12위 수입상대국¹⁴⁾ (2012년 기준)
- 대 러 주요 수출품목: 자동차(부품), 합성수지, 건설광산기계, 무선통신기기
- 대 러 주요 수입품목: 원유, 석유제품, 석탄, 알루미늄, 천연가스

<표 10> 한-러 무역 추이

단위: 백만 달러

	2008	2009	2010	2011	2012
한국 → 러시아	9,748	4,194	7,760	10,305	11,097
러시아 → 한국	8,340	5,789	9,899	10,852	11,354
무 역 규 모	18,088	9,983	17,659	21,157	22,451
무 역 수 지	1,408	△1,595	△2,140	△547	△257

자료: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.

13) 양국은 1997년부터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, 2008년 9월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됨.

14) 2012년 연중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547,870백만 달러, 총수입은 519,584백만 달러로 무역규모는 1,067,454백만 달러(세계 8위)로 집계됨.



□ 2011년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기대

-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은 생산적인 투자유인, 자본유입, 경제구조 다변화, 지속적인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필요조건임.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(19년간 협상)으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됨.
- 2011년 12월 16일, WTO 가입타결(2012년 7월 의회비준, 8월 발효) 이후 러시아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관 및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로써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세관 및 행정의 투명성 강화, 예측가능성 제고, 일관성 개선 등이 기대됨.
 - 러시아가 WTO 가입 이후 상품 수입관세(평균)를 현행 10.0%에서 7.8% 수준으로 7~10년간 인하(공산품의 경우 평균 9.5%→7.3%)하여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(부품), 합성수지, TV부품, 컴퓨터 및 무선전화기 등의 수출증가가 예상됨.
- 외국인투자 증대에 따른 경쟁 과정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.
 -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효율성 증대로 향후 10년간 GDP 규모가 11%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.

□ 러시아의 IT 및 소비재 분야의 시장수요 증가예상

- 러시아는 1억 4,337만의 인구(세계 9위, 유럽 1위)를 보유한 대국으로서 2000년대 들어 고도 경제성장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중산층이 확대되었고, 그 결과 구매력 증가 및 소비성향 증대로 고가상품에 대한 지출 증가, 소비패턴 서구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.
 - 러시아 인구의 73%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, 도시지역의 구매력이 전체의 8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구매력평가(PPP) 기준¹⁵⁾으로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가구가 1천만을 넘는 등 중산층의 급증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됨.

15) 2012년 기준 17,603달러 수준



-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기술 집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하이테크 및 테크놀로지(나노 등)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, IT 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추진함.
- 신모스크바 건설계획에 따른 혁신도시(스콜코보(Skolkovo) 지역 등) 첨단기술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, IT 정보화 구축 사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제품 개발, 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확충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.
- WTO 가입으로 유통 등 서비스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인 러시아는 대부분의 소비재를 유럽, 중국, 터키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재 산업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동 분야의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□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 지역의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참여 필요

-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·태평양 시장에 대한 에너지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 연해주 지역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¹⁶⁾.
- 2007년 러시아 에너지·산업부는 동부 가스개발계획을 수립,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지역에 천연가스의 통합적인 생산, 운송 및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2년 5월,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부(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) 설립 등으로 교통인프라 및 물류시스템 개발·확충계획을 추진함.
- 특히, 우리나라와는 지리적 인접성, 잠재적 에너지 매장량¹⁷⁾ 등을 감안할 때, 향후 동부 가스개발계획 등 러시아의 자원개발 사업추진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, 러시아 인프라(발전소, 도로, 철도, 항만, 수도 등)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(SOC) 건설 및 자원개발 플랜트를 연계하는 패키지형태의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.

16)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 수출의 80%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고 있는데, 2006년 이후 양국간 크고 작은 분쟁으로 러시아의 가스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. 또 러시아 에너지부는 가스 수출의 20%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(현재 5% 미만)할 계획임.

17)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 지역의 육상(onshore) 천연가스 매장량은 52.4조 m³로 추정되어 현재 확인매장량 44.4조 m³를 추월함. 사할린 지역의 경우, 원유 104억 배럴, 천연가스 2조 7천억 m³, 석탄 180억 톤의 부존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


- 2013년 5월 21일,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-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계획 추진, 한-러 극동개발펀드 설립(10억 달러 규모), 한-러 FTA 협상 재개(2008년 이후 중단), 한-러 단기비자 면제협정 체결(2012년 7월 제기,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재논의) 등이 검토됨.¹⁸⁾
- 러시아 정부는 동부 및 극동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 원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극동(사할린 등)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LNG 프로젝트, 항만 건설, 광구개발, 농수산물 어획 및 유통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, 향후 참여가능성이 증대될 전망이다.

문의 :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
유립팀장 조양현 (3779-5707)
yhjo@koreaexim.go.kr

18) 한-러 경제협력 및 정치-외교관계 강화방안은 2013년 9월 G20 정상회담(상트페테르부르크 개최) 및 7월 제13차 한-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(서울 개최)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.